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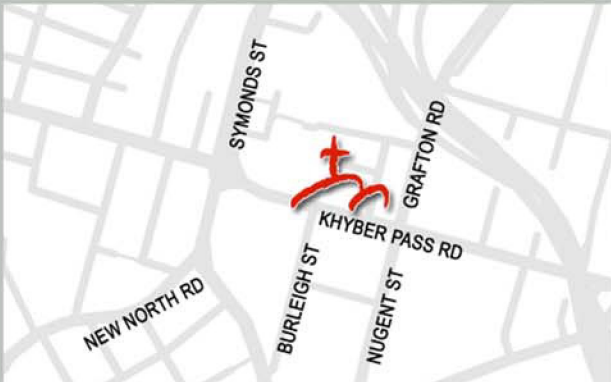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교회 창립20주년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시간 계획으로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말씀 사경회
일시: 2019년 7월 19-21일 (금, 토, 주일) 시간: 저녁 7시 30분 (21일은 오후 12시 30분)
강사: 이은성 목사 (서울 산들 교회 담임, 코스타 강사)
 - 추억의 사진전 (과거 사진, 현재 사진) 준비된 성도는 제출해주세요.
 - 선행 인물을 추천받아 선행 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6월 30일 주일까지 추천 바랍니다. (내용, 대상, 일시 등을 기록)
-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2,3남선교회 주관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남성들의 협력과 참여를 보여주시기 당부합니다.
-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경건한 생활로 성찬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성찬 위원/시무장로, 교역자)
-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 7월 7일(주일)~7월 9일(화) 장소: Orere Point top 10 Holiday Park
주제: ACTS29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하라!)
- 지난주 밀알 장애우를 섬긴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 필요, 토요일 오전 10-오후 3시, 월1회)
-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 등록 교우를 환영합니다. 박실 5B/18 Wakefield Rd City 4 남선교회

[6월 교회 사역]

- 6월 26일 (수) 선교회 주관 예배
- 6월 30일 (주일) 성찬 주일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6/23
21권 25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요한복음 7:37-38 인도자
찬송	27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70장 다같이
대표기도	손조훈 집사
성경봉독	이사야 55:1-7 인도자
찬양대찬양	믿는 사람들은 군병같으니 나무십자가 찬양단
설교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2 이태한 목사
찬송	309장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445장 다같이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2,3남선교회 헌신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8시 15분
기도	말은이		금주기도	마현정 자매
성경봉독	민수기 13: 25-33		다음주일	유태림 형제
특송	2,3남선교회			
설교	[갈렘의 신앙] 이태한 목사			
찬송	214장			
주기도	다같이			

[6/7월 기도 순서]

- 6월 30일 (주일) / 정관영 장로
- 7월 3일 (수) / 김선화 집사
- 7월 7일 (주일) / 이광희 장로
- 7월 10일 (수) / 김영옥 권사

[6월 예배 봉사자]

- 예배 안내 / 손조훈, 고미현
-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 주차 안내 / 김교섭, 민광호
-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김민경

MISSION

이번 주는 오클랜드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는 장세중 선교사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좀 더 특별한 라마단 기간을 보냈습니다. 에스더는 제빵을 키워 리더로부터 배워서 10개의 케익을 정성스레 구워 자매들, 다양한 이웃들, 회심자들을 방문했습니다. 폴은 지역의 모스크 리더에게 초대를 받아서 Iftar(급식을 마치고 먹는 저녁)를 모스크에서 함께 하는 특별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FFF에서 이웃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EidalFitr(한국의 설 명절과 비슷) 잔치를 합니다. 잔치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평강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리더들이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다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시편을 읽으며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에는 새로운 이웃들이 FFF 예배에 함께 하고 성경을 자발적으로 받아 가서 읽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들이 “폴과 에스더, FFF 가 그들의 영성 생활에 큰 도움과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FFF에 오는 것이야”, “FFF를 통해 용서와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삶을 배웠어,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과 돌봄을 느꼈다고”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회심자 자매의 딸이 처음으로 FFF 예배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경험하는 한 달이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FFF에 헌신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특히 주일에 TableDiscussion을 인도하고 KIDSFFF(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장 씨네가 교회 옆 시내로 이사를 하고 정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폴이 중등으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특히 이번에는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오클랜드에 남아 있는 에스더와 찬이, 미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에스더의 건강(손목, 고관절, 치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기도 제목

1.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무슬림들이 안전하게 영적인 성장을 잘 하도록.
2. 공부하러 간 폴 선교사가 강건하게 잘 마치고 오도록.

PRAYER

1. 창립 20주년에 합당한 교회로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지도록.
2. 사경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3. 육체의 고난과 삶의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SHARING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부터 갈보리 교회 청년부에 출석하는 박민해입니다.

오늘 (6월 20일) 은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에 온 지 201일이 되는 날입니다. 201일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저의 의지대로 저의 인생을 끌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겠다면서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실 틈을 드리지 않고 힘이 닿는 대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챙기고 스펙을 쌓으면서 주 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힘들고 고되어도 이런 삶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안주하였습니다.

그러다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가운데 이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삶에 초청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저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적응하기 어렵고 힘든 외국 생활을 이어가다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고민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스스로 되묻습니다. 그렇게 묻고 나면 해야 할 고민인지 아닌지 바로 깨닫게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난 곳이 아닌 이렇게 멀고 먼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박민해 청년

금주의 암송말씀

이사야 55: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